

咸平李氏進士公諱汝霖派譜序

歷史의 흐름 속에 서도 綿綿히 이어오는 性實은 必有譜하며
有譜則有派譜의 原理는 必須의 正則이다 이것은 族黨譜合의
義로 上明先系하고 下錄諸宗後裔하여 永遠히 保全되어야 할
姓實의 歷史요 나아가서는 國家百年大計의 民族史의 資料와 變
遷史라 할진데 惟我咸平李는 始祖諱彦 高麗神武衛大將軍 以
來 千年史의 흐름 속에 內로는 宗族의 敦睦과 外로는 國家發
展에 多大한 貢獻을 寄與하여 오면서 時代的變遷과 社會的
潮流 및 世孫의 繁昌에 따라 時에 順應하여 譜史傳授를 精誠
것 傳掌하여 왔다 然而나 惟我進士公諱汝霖派譜之後 於焉四
十有餘年 民族的 受難과 變亂으로 世孫은 天分하고 生活時
俗과 散在居處가 多變함에 崇祖理念과 宗族間의 隣交敦睦의
史觀이 衰微함에 이르렀다 이에 丁巳年祭享時 派譜의 必然
性을 舉論하게 되었으니 此際에 爲先奉公의 思想을 鼓吹시

升正 隣保相從斗 美俗言 世孫州州 傳授斗斗斗

檀君紀元四千三百十一年西紀年一九戊午仲夏

後孫 判憲 謹序

進士公諱汝霖派譜跋

우리咸平李家의 大同譜編修가 已有二十餘年이요 進士公派譜編
修 正하 三十餘年이나 其間生卒嫁娶가 頻繁하고 正 世態의
流通으로 或他郷 或外國으로 離散居住가 頗多하니 念祖收族에
깊은關心을 갖는者가 어찌 一日이러도 放置할수있으랴 各派
에서 大同譜續修論이有하나 이는 龐大한事業임으로 猝然히紂
議成就하기가 困難하고 우리孝友公派에서도 全派譜說이有하나
이正하 容易치않음으로 去年十月十五日 進士公墓祭時에 進士
公後孫이 宗會를열어 謀議한結果 만기 進士公先祖事業을하고
收族敦睦의義를 助長하기爲하여 우리進士公後裔派譜를 編纂하
와 一世帶一帙式保有하여 後孫으로하여금 祖上系列을알고 各
地分住한 宗族狀況을 알게함이 先務가되다고 結論하여 各有
司를 分定하여 收單募金을 施行한後 不遇數 三月에 進行이順調
되여 刊役이幾畢할새 門父老의命이 不肖에게 卷末의一辭를
記述하라 하심으로 敢히 辭讓치 못하고 顛末을右와같이 記錄
하며 다만 宗族諸位에게 嚮望하는바는 이冊을閱覽하면서 先

祖事蹟을

追慕하고

遠近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는

心情이

感發되

斗

冊을編修하고

永久히

빛나리다

檀紀四千三百十一年○

西紀一九七八年

戊午八月

日

進士公諱汝霖十五代孫

載宇謹跋